

# ‘변화’와 ‘장’을 통한 한대 도가 사상의 고찰: 황로학을 중심으로

김덕삼\*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변화’와 ‘장’의 의미와 가치
- III. 한대 도가 사상의 ‘주체’와 ‘장’
- IV. 한대 도가 사상의 ‘변화’와 ‘패턴’
- V. 나오는 말

## 한글초록

본고에서는 한대 초기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황로학을 ‘변화’와 ‘장’이라는 틀로 탐구하였다. 황로학은 노자에서 발원한 도가 사상이 한대에 이르러 도가 사상의 한 형태로 존재한 것이다. 황(黃)은 황제(黃帝)를 가리키고, 노(老)는 노자(老子)를 지칭하지만, 노자의 영향이 컸다. 선진 시기 노장사상과 달리 한대 초기에 황로학이 대두되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도가사나 정치사에서 특이한 일이다. 도가의 측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와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를 둘러싼 변수와 그 속에 발생하는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화’와 ‘장’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변화’와 ‘장’이라는 틀을 통해 한대 도가 사상을 고찰하면서 한나라 초기에 도가 사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

고, 그 변화 속에 도가라는 ‘주체’와 이를 둘러싼 ‘장’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가 사상과 한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주제어

변화, 패턴, 주체, 장, 도가, 황로학

## I. 들어가는 말

도가 사상은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이다. 유가가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 학문에 영향을 ‘미치며’ 존재했다면, 도가는 예술, 의학, 체육, 문학 등과 ‘함께’ 존재했다. 이 둘의 존재 양식과 존재 형태가 서로 다른 것은 각각의 사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가가 현실 세계에서의 이성적인 행위를 추구했다면, 도가는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감성까지 아우르는 행위를 추구했다. 유가가 사제(師弟)의 관계로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어나갔다면, 도가는 특정 집단이나 특별한 관계도 없이 사상적인 유대감 속에 존재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면, 유가의 변천이 명확한 반면, 도가는 명확하지도 못하고 명맥도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 역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명맥이 이어졌는지 끊어졌는지 다르게 볼 수 있다. 도가를 노자의 사상에 국한하는 협의적 관점보다, 도가 문화로 확장하는 광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명맥은 지금까지 중국 문화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가 문화는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浮沈)이 있었다.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 한초의 통치자는 황로사상(黃老思想)을 이용

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여기서 황로학의 황(黃)은 황제(黃帝)를 가리키고, 노(老)는 노자(老子)를 가리킨다. 황제는 전설상의 인물이고 황제를 대표할 경전은 없다. 물론 황로학을 대표할 사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황로학의 이론적 기초는 노자와 도가 철학에 집중된다.<sup>1)</sup> 그래서 혹자는 황로학을 일러 ‘진한신도가(秦漢新道家)’라고 한다.<sup>2)</sup> 물론 황로학은 노자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그러나 도법가적 성향의 황로학을 도가의 범주에서 넓게 생각하면 노자이후 도가의 변화는 각 시대마다 나름의 특징을 갖고 변화였다. 그래서 우민웅(于民雄)은 “한나라 초에 유행한 황로학은 ‘무위(無爲)’를 핵심으로 한 제왕(帝王) 통치술(統治術)”이라고<sup>4)</sup> 단정했다. 즉, 황로학은 도가 사상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도가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전국시기에서 출발하여 한대의 정치와 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5)</sup>

본고에서는 황로학의 사상을 중심으로 다른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탐구하려 한다. 노자에서 발원한 도가 사상이 춘추전국시기를 거치면

1) 황로학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띤 것은 1973년 12월에 장사마왕퇴한묘(長沙馬王堆漢墓)에서 관련 문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제사경(黃帝四經)』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에 대한 주석서도 출간되어 나왔다. 陳鼓應 註譯, 1995, 『黃帝四經今註今譯』,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2) 1981년 웅철기는 『從呂氏春秋到淮南子 - 兼論秦漢之際的新道家』의 문장과 1984년의 『秦漢新道家略論稿』(熊鐵基, 2001, 『秦漢新道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에서 황로의 학을 일러 ‘진한신도가(秦漢新道家)’라고 하였다.

3) 청대의 위원(魏源)은 도가를 “황로의 학과 노장의 학(有黃老之學, 有老莊之學)”으로 구분해서 언급했다(『魏源集·老子本義序』). 반면 장백잠은 “한나라 사람은 도가를 항상 ‘황로’라고 말하고, 위진사람은 ‘노장’이라고 말한다(漢人言道家輒曰‘黃老’, 魏晉人言道家則曰‘老莊’)”고 했다. (蔣伯潛, 『諸子通考·諸子人物考·莊子及道家者流』) 熊鐵基, 2001, p.7, 재인용.

4) 김덕삼 편저, 2006, 『도교의 기원』, 서울: 시간의 물레, p.125.

5) 김덕삼, 2004, 『中國 道家史 序說 I』, 서울: 경인문화사, p.218.

서 변하고, 이것이 한대 초기에 황로학으로 존재한 것을 ‘변화’와 ‘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변화’를 통해 선진시기의 원시도가 한대 초에 황로학으로 각광받고, 도가 사상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을 고찰하고, ‘장’을 통해 황로학이 발흥한 한대 초기의 시공간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변화’와 ‘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먼저 논하였다. 역사를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 나와 여기와 지금에 입각하여 되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변화의 중심에 있는 주체를 생각하면서 주체를 둘러싼 장을 파악하여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오늘 여기 우리의 삶도 역사가 됨을 인식하고자 했다.

이어서 ‘변화’와 ‘장’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대 도가 사상을 고찰하면서 한나라 초기에 도가 사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였고, 그 변화 속에 도가라는 ‘주체’와 이를 둘러싼 ‘장’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도가 사상과 한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여 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변화’와 ‘패턴’보다 ‘주체’와 ‘장’에 대한 탐구를 먼저 진행했다. 끝으로 이러한 역사의 거울을 통해 변화와 장에 대한 것을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대 초기의 도가 사상을 다룬 것은 적지 않지만, 이것을 변화와 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반론적 의미까지 추적하는 연구는 없었다. 필자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으로 나아가기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시도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보다 건실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변화’와 ‘장’의 의미와 가치

데이터가 중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지금, 역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다각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시되었다. 어쩌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과거 성현들은 오랜 인류의 데이터를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해야 함을 강조했다.

왜, 옛 것을 고찰하려 했을까? 바로 그 속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법정에서 판례를 찾아 참고하는 것처럼, 혹은 황제가 과거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일상생활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변화무쌍하지만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패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 특징 속에 다양한 인간의 행위 변화도 고유한 성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본고에서는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가 고유한 패턴을 알고 있다면 삶의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배가 아프다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 만약 날씨가 흐리고 천둥번개가 친다면? 서둘러 비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변화 속의 이러한 패턴을 아이는 잘 모른다. 어른이 생각하기에 간단한 것도 경험하거나 배워서, 다시 말해 데이터에 대한 공부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를 확장시켜 적용하면, 지나온 인류 역사 속에는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

밀한 패턴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대의 도가 사상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도가 사상의 변화나 다른 학문의 변화를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역사에 나오는 진시황같은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도, 만세사표(萬世師表) 공자도,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도 예외일 수 없다. 엥겔스는 “모든 시대의 이론적 사유는 …… 상이한 시대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식과 상이한 내용을 갖는 역사적 산물”이라고<sup>6)</sup> 말했는데, 이것은 비단 인간의 사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공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공간의 상호 영향 속에 이루어지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칭하여 ‘장(場)’이라고 보았다. 행위의 당사자인 ‘주체’와 그 주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주체와 장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화한다.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는 것은 주로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에 집중하여 생각하고 다루었다. 필자는 주체를 잠시 옆에 두고, 주체에 영향을 주고, 주체와 함께 하는 상황, ‘장’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먼저 장에 대한 내용적 측면이다. 장은 그 시대와 사회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 가치관’을 토대로 형성되는데, 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이론(場理論)을 포함하여, 관점, 패

6) 엥겔스, 황태호 역, 1989, 『자연의 변증법』, 서울: 전진출판사, p.43.

7) 김덕삼, 2013, 「場의 변화에 따른 孝의 역할 고찰」, 『儒敎思想文化研究』 제52집, pp.159-161.

러다임, 에피스테메, 틀, 프레임 등이고, 이는 철학, 과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는 약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은 프레임이나 패러다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 가능하나, 개인과 사회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의 의미도 장과 관련된다. 그러나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여 사용하기 어렵고, 어떠한 배경이란 용어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 외에 문화적, 경제적, 사상적 배경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장은 이러한 것을 포괄하면서, 그 가운데 당시 사회를 변화시켰던 가장 중추적이고 중심적 가치관을 토대로 한다.<sup>8)</sup> 장은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가치관’이 응집되어, 외부로부터 수용한 것을 다시 배출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장에 기초하여 다시 개인과 사회의 인식과 판단의 근거가 형성된다.

장은 ‘중심적 가치관’을 내용으로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담고, ‘시간’과 ‘공간’과 ‘중심적 가치관’과 ‘주체’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을 담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와 ‘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태극’처럼 섞여 있는 것도 아닌 장 속에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 변화하고, 변화 속에 패턴을 갖게 된다. 장은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이 있다. 사회라는 하나의 장이 있지만, 사회에는 각 개인이 존재하며 각자 자신의 장이 무수히 있을 수 있다. 사회도 사회와 사회, 이를 포함한 국가와

8)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도 예외는 아니다. 사상사를 보면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적 가치관도 가족계획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덕삼, 2013, 「場의 변화를 통한 중국 少數民族의 自願的 변화 고찰」, 『中國研究』, 제58권, p.214.

국가, 더 나아가 인류와 이 밖의 생명체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장을 파악하고 장과 주체의 영향을 인지하면 인식의 폭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것도 결국 각자의 장을 벗어나 상대의 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객관화 혹은 타자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바로 나의 장을 떠나는 것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살았던 곳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장에 있느냐에 따라 이해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다른 (인식의) 입장으로 본다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만큼 떨어진 것 같고, 같은 (인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sup>9)</sup>

결국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인식에 있어 인간이나 사회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갖는다. 인식은 사물을 인지(認知)하고 식별(識別)하면서, 기억(記憶), 사고(思考)하는 작용 및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인식이 성립되는 전체적인 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장은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같은 것을 보고 반응하는 아웃풋이 다른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실험에서도 종종 발견된다.<sup>10)</sup> 현대의 사회적 문제도, 문제 자체보다 변한 장에서, 다시 말해 주체가 아닌 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은 ‘구조(構造)’하고 관련된다. 주체가 해결할 문제와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엄연히 존재한다. 장은 이러한 구조를 포괄한다.

‘변화’는 ‘패턴’과 ‘장’은 ‘주체’와 짝을 이룬다. 이 둘을 연계하여 생각하면 보다 많은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을

9) 『莊子·德充符』: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

10)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서울: 김영사.



적용할 대상으로서 한대의 도가를 잡았다. 한왕조는 서한(西漢), 신조(新朝), 동한(東漢)의 세 개 시기로 모두 426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한대를 대표하는 도가는 황로학, 『회남자』, 도교의 탄생, 위진현학 등을 말할 수 있다.<sup>11)</sup> 본고에서는 황로도가 사상이 통치지위를 차지한 한고조에서부터 한무제까지 약 70년 정도의 시간을 고찰하려 한다. 한대에는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천이 있었다. 그 변천의 주요 동인은 결국 사상을 계승한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장에 있다. 이에 따라 도가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역사에 존재했다.

### III. 한대 도가 사상의 ‘주체’와 ‘장’

한대 초기 도가 사상의 주체와 장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주체’는 ‘도가’이고, ‘장’은 도가 사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다양한 요인’들이다. 요인에는 시공간적 요인과 시대를 이끈 사람들 사이의 영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 도가 사상은 변화하였다. 주체와 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인 도가의 성격과 그 성격에 영향을 준 ‘장’을 고찰하는데, 도가 내의 변화와 특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대 초기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황로학은 북방 도가의 영향 속에 발흥하였다. 장과 관련하여 도가의 변화를 고찰하다보면,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왕보현(王葆玆)의 관점이다.<sup>12)</sup> 그의 관점은 기존의 유가와 도가가 중국의 북방과 남방에 기원하였다는 이론과 결부하여 도가에서도 남방과 북방에 따라 성향을 달리하는 도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결국 이는

11) 何建明, 1997, 『道家思想的歷史轉折』, 上海: 華中師大出版社.

12) 王葆玆, 2002, 『老莊學新探』,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pp.9-17.

공간적 장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사상이 발아하였다는 것으로, 장과 관련된 도가 사상 변화의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전국시대에서 한초에 이르기까지의 도가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중국은 오늘의 정치나 사회 경제를 비교할 때도 자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철학에서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북은 유가문화의 특징이 강하고 유가의 발원지라고 여기며, 남쪽은 도가 문화의 특색이 강하면서 그 발원지를 이룬다고 본다. 그것은 남과 북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등에 기인하여 풍습과 문화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주로 쌀을 먹는 반면, 북쪽에선 주로 면을 먹는대거나 혹은 북쪽사람은 키가 크고 건장한 반면 남쪽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등의 비교를 많이 한다.<sup>13)</sup>

도가를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할 때, 북쪽의 도가는 남쪽의 도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황제경』을 더 중시하고, 남쪽의 도가는 북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자』를 더 중시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북쪽은 ‘도법(道法)’과 ‘황제의 술(術)’을 중시하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무위정치’를 주장하고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중시했다.<sup>14)</sup> 또한 이러한 구분에 근거한 북방 도가의 저작 『황제사경』과 『문자』등을 볼 때, 북쪽 도가는 양(陽)을 중시하는 ‘귀양(貴陽)’의 입장이 강하고, 남방 도가의 저작으로 보는 『범려(范蠡)]와 『장자』등에 비추어 볼 때, 남쪽 도가는 음을 중시하는 ‘귀음(貴陰)’의 입장이 강하다.<sup>15)</sup> 이것을 ‘장’과 관련시켜보면, 일반적으로 음이라는 것에는 서늘하고 시원하다는 것이 포함되고, 양이라는 것에는 따스하고 더운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남방의

13) 오늘날처럼 확장된 중국의 영토에서 남쪽과 북쪽이라는 의미는 차이가 있다.

14) 王葆琰, 1998, 「“黃老易”和“莊老易”-道家經典的系統性及其流變」, 『道家文化研究』, 第12輯, pp.31-51.

15) 王葆琰, 1999, 「南北道家貴陰貴陽說之歧異」, 『道家文化研究』, 第15輯, pp.56-63.

기후를 보면 덥고 뜨거워, 서늘하고 시원한 것이 좋은 것이 된다. 그 렇기에 은연중에 ‘귀움’을 중시하고, 북방은 춥고 서늘하여 따스함을 좋아하게 되었다. 물론 도가를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 에는 선결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가를 계통적으로 구 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러한 시도는 ‘장’과 관련하 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결국 한대 초기 도가 사상은 북방쪽의 것이 채택된다. 그것은 한대 왕조의 발원지가 남방보다는 북방에 더 근접 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북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를 통치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 인 사상에 중심이 쏠렸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 와 같다.

둘째, 시간의 변화 속에 만들어진 장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원명(丁原明)도 한대 초에 황로학의 발전을 세 가지 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안정에 대한 요구, 당시 봉건 경제가 지니고 있는 전쟁의 폐해, 당시 사상계의 상황이다.<sup>16)</sup> 이것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 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춘추와 전국시기 약 550년, 그리고 이 어진 진대의 통일 후 15년 동안의 기간은 국가 정비와 새로운 법령의 시행 등으로 백성들은 피곤하였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다시 혼란이 시 작되었다. 진시황의 생각지 못한 죽음과 이세황제의 실정과 폭정, 그 리고 이에 대한 진승오광의 난과 같은 반란, 약 8년 정도의 시간을 다 시 혼란 속에 보내고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한왕조가 건국되었다.<sup>17)</sup> 이때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휴식이었다. 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눈

16) 丁原明, 1997, 『黃老學論綱』,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pp.73-74.

17) 김덕삼·이경자, 2019, 「진시황의 삶을 통해 본 교육적 의미」, 『中國學論叢』, pp.285-308.

앞의 산해진미를 피하게 하고, 수액주사부터 시작하여 액체, 즉, 간단한 식사를 권하는 것처럼, 대혼란기를 겪은 백성은 큰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지친 상황에 휴식을 부여하는 황로학이다. 황로사상의 이론적 기초이자 그 중심 사상은 노자철학이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해, 백성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크게 마련이다. 한왕조가 건국된 이후 경제는 폐허가 되었으나, 진왕조의 교훈에 비추어 통치자는 응당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자제하고 당분간 백성들에게 휴식과 안정을 주어야 했다. 이러한 것을 통치자가 솔선수범했고 백성들은 이에 감화되어 뒤를 따랐다. 예를 들어, 한대 초기 한문제(文帝, 유항(劉恒)는<sup>18)</sup> 검소한 인물이었다. 한문제는 그가 만들고 싶어 했던 ‘노대(露台)’도 일반 서민 10가구의 재산과 비슷한 백금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자 포기했다. 그는 옷도 소박했고, 화려한 무늬나 금과 은을 이용한 기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백성들의 부담은 줄고, 세금 역시 수입의 30분의 1정도만 걷었다. 문제를 이은 경제(景帝)도 이러한 태도를 이어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에 부합하는 사상이 황로학이었다. 이때 위정자가 무위를 말하고 실천하며, 백성들이 이에 동화하니 사회는 오랜 전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노자와 도가를 떠오르게 했고, 이러한 장 속에서 황로학은 융성할 수밖에 없었다.

18) 참고적으로 1977년 안휘(安徽) 부양(阜陽) 쌍고퇴(雙古堆) 1호 한묘(漢墓)가 경지 정리 작업 중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서한(西漢)의 문제(文帝)때 여음후하후조부부(汝陰侯夏侯寵夫婦)의 묘로 추정된다. 그 속에서 『시경(詩經)』, 『주역(周易)』, 『창힐편(倉頡篇)』, 『만물(萬物)』, 『장자(莊子)잡편(雜篇)』 등 다종의 죽서(竹書)가 발견되었다.

셋째, 위정자의 성향이다. 앞에서 한문제와 경제가 언급되었지만, 한나라를 세운 인물들의 성향과 도가 사상 사이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한나라를 개국한 유방은 중국 역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서민 출신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유방은 당시 지식인과 유생들을 무시하였다. 그것은 “이 몸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여 천하를 얻었는데, 시집 나부랭이 같은 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나!”는 육가에게 한 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한 건국 황제다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육가는 이러한 유방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말을 타고 천하를 얻으셨지만, 계속해서 말을 타고 천하를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까?”<sup>19)</sup> 이에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육가는 유가 인물이지만 그도 무위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신어(新語)』무위(無為)편에서 말하길 “도는 무위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sup>20)</sup> 이것은 무위가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원칙이라는 말과 같다. 유방은 육가의 이러한 영향 속에 무위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한혜제(漢惠帝)가 황제가 되고, 조참(曹參)이 승상이 되었을 때 무위의 원칙은 제대로 실행되었다. 이어 한혜제가 죽고, 문제가 왕위에 올랐다. 사마천은 문제의 황후 두(竇)씨는 황로학을 좋아하여, 한문제와 태자 모두는 황제와 노자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제는 가의(賈誼)가 유가의 학설에 의거해 국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를 중앙의 관리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당시 주발(周勃)이나 관영(灌嬰)같은 원로들이 젊은 가의의 생각을 두려워하자 문제는 그를 제후국으로 보내고, 청정무위의 정치를 계속하였다. 이어 한경제 때에는 두(竇)황후

19) 『史記·陸賈列傳』: 陸生時時前說稱詩書 高帝罵之曰 廼公居馬上而得之 安事詩書 陸生曰 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

20) 『新語·無為』: 道莫大於無為.

가 태후가 되었고, 한경제가 죽고 한무제가 16세에 황제가 되었을 때, 두태후는 태황태후(太皇太后)가 되었다. 그래서 황로학을 숭배하는 두 태황태후의 뜻을 한무제는 거스를 수 없었다. 이처럼 한대 초기 황제들의 정치사상은 황로학을 기초로 삼아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황제를 넘어서 개국공신과 집권 세력의 지속적인 지지가 한대 초기 도가 사상의 융성에 영향을 미쳤다. 황제는 물론이고 개국공신과 뒤를 이은 신하대신들이 황로학에 우호적이었다. 예를 들어, 한초의 중신(重臣)들 가운데 장량(張良), 진평(陳平), 소하(蕭何), 조참(早參) 등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황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sup>21)</sup> 앞에서 언급한 육가의 경우도 비록 그가 유가에 속하지만 무위를 숭상하였고, 이는 바로 오랜 전쟁과 동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또한 유방의 장군이었던 조참도 황로학을 따르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한때 조참은 제나라의 재상이었다. 그는 직하학파가 있던 제나라에서 황로학을 배우고, 청정무위(淸靜無爲)로 정치하는 것의 이로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승상이 되어서 스스로가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이 조참처럼 하루 종일 놀고 술 마시며 지내도 나무라지 않았다. 이에 한혜제가 조참에게 말하자 조참은 혜제에게 되물으며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유방과 비교하여 어떠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혜제는 “나는 못하다.”라고 대답했고, 다시 조참이 “그러면 저는 소하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하고 묻자, 혜제는 “못 미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조참은 “맞습니다. 유방과 소하는 매우 완전한 제도를 제정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집행하니, 하지 않아도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조참은 이처럼 스스로 청정무위를 실현하려 했다. 전란에 지친

21) 熊鐵基, 2001, p.75.

백성들의 민심을 따라 자연이연(自然而然)을 실행했는데, 이는 바로 황로사상의 실천이었다.

황로학이 각광받게 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다. 그것은 시대적 요청과 이를 파악한 권력자와 이를 따르는 공신들의 암묵적 동의와 지지에 있고, 황로학이 채택된 것도 지리적으로 북방 도가에 가까운 것과 성향에 맞는 것도 있다. 결국 이러한 장의 변화는 황로학을 수용하여 발흥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백성은 전란의 폐허를 극복하고 회복하게 되어 다시 번영의 길을 걷게 된다. 물론 이 때 새롭게 바뀐 장 속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적절한 유가가 정치사상으로 채택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한무제는 두태황태후가 죽은 뒤, 황로학을 멀리하고 유생 공손홍(公孫弘)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이어 동중서(董仲舒)의 “백가를 가려내고 유가를 독존케 하는 罷黜百家 獨尊儒術” 건의를 수용하여, 유가가 정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바로 장이 바뀐 결과이다. 오랜 동란으로 지친 상층은 청정무위의 황로학에 의해 회복되고, 이제 국가와 사회라는 조직을 다스릴 사상이 필요했고, 이러한 시스템을 조종할 것으로 유가가 요청되었다.

#### IV. 한대 도가 사상의 ‘변화’와 ‘패턴’

앞서 언급한 주체와 장의 관계 속에서 한대 도가 사상의 변화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패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진시기 도가 사상을 현실에 참여하는 사상으로 변화시켰다. 도가의 기원을 따지자면 쉽지 않겠지만,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거론된 도가류의 글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태공(太公)』237편이 있다. 시간상 이것은 서주(西周) 초

년의 태공때로 올라가고, 『회남자(淮南子)』요략(要略)에는 “문왕이 겸손함과 약함으로 강함과 난폭함을 제어하려하자 천하의 해로움이 제거되고 왕도가 이루어져 태공의 술이 거기서 생겨났다”고<sup>22)</sup> 기록하고 있다. 물론 시원을 말하는 것은 태공때까지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도가를 말하는 데 있어 그 시원은 노자한테 맞춰진다. 그리고 노자의 사상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장자와 묶어 노장사상을 선진시기 도가의 대표적 인물이자 사상으로 언급한다.

선진시기에도 문자, 열자를 비롯하여 『여씨춘추(呂氏春秋)』 등이 도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위서(僞書) 등의 이유로 선진시기 도가 사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여씨춘추』를 도가 계열의 책으로 보기 힘든 이유나, 심지어 장자를 유가 계열의 인물로 보는 이견(異見)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도가 자체의 성격으로서 도가는 유가나 묵가처럼 사제(師弟)관계로 맺어지거나 상하관계가 명확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자와 장자는 사제관계나 어떤 집단 속에 속하여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선진시기 도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선진시기 도가는 이후 진한 시기를 거쳐 수당부터 더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한대 초기의 도가는 앞에서 왕보현의 견해를 이용해 언급했지만, 선진시기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의 사상을 북방도가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에 참여하는 도가 사상으로 바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노자의 사상이 전면에 나왔고 도가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그리고 노자에서도 관념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강조된 변화를

22) 『淮南子·要略』: 文王欲以卑弱制強暴 以為天下去殘賊而成王道 故太公之謨生焉.



알 수 있다. 특히 노자가 강조한 청정무위의 정책은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기도 했고, 이것은 한무제의 독존유술(獨尊儒術)로 대체되는 계기가 된다. 한대 초기이후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도가는 유가 독존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위를 얻거나 획득한 일은 없었다. 특이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한대에 이르기까지 도가는 그들을 호칭하는 특별한 명칭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선진시기까지 실질적으로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가와 묵가뿐이고, 그 이후 한대에 사마담(司馬談)의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에서 도가의 이름이 정하여진다.<sup>23)</sup> 도가의 명칭이 선진 이후에 명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도가의 계통 속에 선진시기의 몇몇 인물들을 묶어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유가처럼 사생관계나 묵가처럼 어떤 조직의 상하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사상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통칭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경전을 꼽으라면 단연 노자와 장자라는 두 인물과 그들 이름 아래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런데 한대 초기에 장자의 이름은 빛을 못 봤다. 앞에서 언급한 장백잠(蔣伯潛)의 지적처럼 “한나라 사람은 도가를 항상 ‘황로’라고 말하고, 위진사람은 도가가 ‘노장’이라고 말한다(漢人言道家輒曰‘黃老’, 魏晉人言道家則曰‘老莊’)”<sup>24)</sup> 것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이것은 사회 변화의 장과 관련된다. 남방 도가와 북방 도가의 관점처럼 장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한대 초기에 도가라는 명칭을 통해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들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황로학도 변한다. 노자로부터 발원하는 황로학은 한나라 초

23) 김덕삼, 2004, pp.15-20.

24) 蔣伯潛, 『諸子通考·諸子人物考·莊子及道家者流』, 熊鐵基, 2001, p.7, 재인용.

기에 유행하여 전성기를 맞이한다. 특히 직하학공의 경우 황로학에 미친 영향은 컸다. 그래서 “황로학은 도가를 아버지로 하고 직하를 어머니로 하여, 그 자양분을 맘껏 먹고 성장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까지 할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한대 초에 정치사상으로 영향을 크게 주었다. 하지만 서한 말년이 되면 다시 변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노자』(춘추말기) ⇒ 범려(춘추 말기) ⇒ 직하황로학 : 『황제사경』(전국 초기~중기) ⇒ 『관자』(전국 중후기) ⇒ 『여씨춘추』(전국 말기) ⇒ 한대 초기의 황로학 ⇒ 동중서의 유학

물론 변화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서한 말년에는 양생(養生)과 제사로 신선가와 결합한 형태를 갖게 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양생을 중심으로 하는 ‘황로학’과 황제와 노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제사를 핵심으로 하는 ‘황로도(黃老道)’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다시 변화하여 동한(東漢) 초기에는 황로양성(黃老養性)을 받들어 장생을 기원하는 풍조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sup>27)</sup> 황로학은 노가 사상의 새로운 변형이다. 그래서 신도가(新道家)나 도법가(道法家)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8)</sup> 황로학은 노자의 소극적 경향을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시켰고, 노자의 유심주의(唯心主義)적 색채를 유물주의(唯物主義)적 형태로 바꾸었으며, 도가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법치(法治)를 이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법가의 사상을 받아들여 도

25) 김덕삼, 2004, p.214. 이러한 측면에서 곽말약(郭沫若)은 황로의 술은 제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성장한 것이라고 보았다(黃老之術 …… 事實上是培植於齊 發育於齊 而昌盛於齊的). 郭沫若, 1996, 『十批判書』, 北京: 東方出版社, p.157.

26) 아래의 정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김경수, 2008,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 서울: 심산출판사, p.90.

27) 김덕삼 편저, 2006, pp.126~127.

28) 김덕삼, 2004, p.221.

가의 자연철학을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변화시켰다.<sup>29)</sup>

변화 속에는 고유한 패턴이 존재한다. 이러한 패턴은 스펙트럼이 넓다. 즉, 한쪽 끝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다른 한쪽 끝은 예외가 많은 특별한 경우로, 규칙적인 패턴보다는 불규칙한 예외가 점점 많아진다. 이 기다란 스펙트럼 속에서 각자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변화와 패턴, 주체와 장의 측면에서 한대 초기의 황로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와 패턴의 측면에서 보자면, 변화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나 기승전결(起承轉結)과 같은 고유한 패턴이 있는데, 황로학의 등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혼란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오랜 동란 끝에 휴식을 원하였다. 제국을 세운 뒤 이들을 통치할 방법이 필요하고, 위정자가 집권하였을 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할 일과 저녁에 할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혼란기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과로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화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 황로학의 등장과 이를 통한 한왕조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둘째, 비슷한 장에서는 비슷한 변화와 행동이 일어난다. 중국 역사

29) 『황제사경』같은 글에서는 ‘도는 법을 낳는다 道生法’하여, 노자의 ‘도’에 법가의 ‘법’을 연결시켜, 하나의 정치철학으로서 그 기초를 확고히 다졌다. 이런 측면에서 구석규(裘錫圭)는 이들을 ‘황로가(黃老家)’로 부르기도, ‘도법가(道法家)’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고응(陳鼓應)은 이점에 반대한다. 즉, 그는 이런 명칭이 도가와 법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황로도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삼, 2004, p.221.

에서 강력한 권력을 발휘하였던 인물로 ‘진시황’과 ‘한무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서 보면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한 세기 정도를 사이에 두고 한무제는 30여 차례의 순행을 통해 지방 제후국의 권력을 누르고 황제 중심의 군현제를 완성하려 하였다. 진시황도 천하 통일 이후 순행을 실시하였다.<sup>30)</sup> 이 둘은 대제국을 건설한 뒤 이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순행이나 개혁을 실시하였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즉 장의 조건이 비슷해지면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이때 한무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 동안 유지해오던 황로학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유가의 사상을 국가 정치철학으로 하여 국가의 안정을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제도 도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신선사상에 깊이 빠지게 된다. 진시황도 그랬다. 한무제는 제나라 출신 방사 소옹(少翁)을 곁에 두고, 그를 문성장군(文成將軍)으로 봉하기도 했다. 무제는 일생 동안 신선방술을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방사들이 만든 단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의 장을 분석하여 이와 비슷한 장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알고 처신한다면 화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장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변화를 취해야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살아남았다. 황로학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알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황로학이 각광 받은 것이나, 노자의 사상이 전해지고 장자의 사상이 약해진 것이나, 한왕조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황로학이 일선에서 사라지고, 유가의 사상이 자리 잡게 된 것 등에서 알 수 있었다. 유가의 등장은 바로 한무제 이

30)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방사들의 말에 따라 불로장생을 추구한 것, 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한 것, 순행 도주에 각 지역의 신에게 제사를 올린 것 등 많은 면에서 유사함을 갖는다.

후 안정된 사회의 요구에 도가나 황로학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안정된 상황을 이끌 체계적인 사상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장의 변화에 걸맞게 황로의 학을 따르는 것과 유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사이에 경쟁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학술 사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세력간의 권력 쟁취하고도 관련된다.<sup>31)</sup> 마침내 유가에게 황로학은 자리를 내줘야 했다. 하지만 다시 위진남북조시대의 혼란기에는 현실을 피하는 정신적 위로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는 현학(玄學)이 각광받게 되었다.<sup>32)</sup>

넷째, 주체의 변화는 무한하다. 그러면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존재’함이다. 정체성은 보존해야 하지만 그 정체성도 모호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 긋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어쩌면 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이다. ‘주체’가 있어야 그 정체성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선진시기 노장사상을 넘어, 한대 초기 황로학을 지나, 위진시기 현학과 도교에 들어간 도가 사상에서 볼 때, 도가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도가에 대한 재해석인 현대 신도가(新道家)는 유가의 현대 신도가처럼 오늘날 그 명맥을 잇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본질보다 존재 그 자체이다.<sup>33)</sup>

다섯째, 주요사상은 통치자와 같은 권력자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즉 당시의 권력과 호응하는 곳에 변화와 발전이 있다. 사실 선진시기 제자백가의 사상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권력자에 대한 외침이다. 도가도 예외일 수 없다. 통치자를

31) 熊鐵基, 2001, p. 77.

32) 王葆琰, 2002, pp. 271-276.

33) 존재하기 위해서는 장과 변화에 맞춰 자기 개발과 혁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창조까지 생각할 필요도 있다. 김덕삼, 2019, 「한국에서 도가 문화의 수용과 창조」, 『한국학연구』, 68집. pp. 71~96.

향한 주장이다. 지금은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백성 다수의 뜻에 부합해야한다. 통치자와 민중이 함께하여 장을 만들고, 여기서 주요사상이 생산되고 채택된다. 물론 선택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무수한 저항과 경쟁이 존재한다. 황로학도 정치 지도 사상이 되었지만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유가와 법가와의 투쟁,<sup>34)</sup> 정치권력 간의 다툼 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결국 통치자의 선택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다. 통치자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장을 형성하는 ‘중심적 가치관’과도 연관되기에, 이를 알고 응해야한다.

## V. 나오는 말

춘추전국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통일과 안정을 희망하였지만, 진의 거센 개혁과 무리한 공사는 백성들을 궁지로 내몰았고, 급기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유방과 항우가 나타나 패권을 다투며 천하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마침내 한나라가 유방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이미 강토와 민심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이를 치유하고 다시 새살을 돋게 한 사상이 황로학이었다. 선진시기 도가가 탄생한 이후, 황로학은 정치전면에 나서 도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도가는 간혹 세상이 어지러운 때 세상의 전면에 나타나거나, 혹은 예술가들의 손끝이나 정신 속에서, 혹은 유가의 그늘에 가려져 삶 속 깊숙한 곳에서, 혹은 도교에 흡수된 형태로서 때론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었다. 다양한 변화가

34) 張運華, 1998, 『先秦兩漢道家思想研究』, 吉林: 吉林教育出版社, pp.194~196;  
陳廣忠·梁宗華, 2004, 『道家與中國哲學-漢代卷-』, 北京: 人民出版社, pp.12~

일어났고, 변화는 주체와 장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이 일반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한대 초기에 정치사상으로 사용된 황로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장으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이 정치사상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주체와 장, 변화와 패턴이란 것을 이용하여 고찰했다. 주체는 장과 상호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주체가 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이 주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고유한 패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대 초기 황로학에 나타난 변화와 장의 탐구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가라고, 자신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상황과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에 휩싸이지도 않고, 현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변화와 패턴을 읽고, 지금의 장 속에 알맞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 찾을 것은 바로 다양한 변화 속에 존재하는 ‘일을 이룸(成功)’에 대한 데이터일 것이다.

## 참고문헌

- 『莊子』, 『呂氏春秋』, 『淮南子』, 『新語』, 『漢書』, 『史記』, 『魏源集』
- 郭沫若, 1996, 『十批判書』, 北京: 東方出版社.
- 熊鐵基, 2001, 『秦漢新道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王葆琰, 2002, 『老莊學新探』,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 王葆琰, 1998, 「黃老易」和「莊老易」-道家經典的系統性及其流變, 『道家文化研究』, 第12輯.
- 王葆琰, 1999, 「南北道家貴陰貴陽說之歧異」, 『道家文化研究』, 第15輯.
- 張運華, 1998, 『先秦兩漢道家思想研究』, 吉林: 吉林教育出版社.
- 陳鼓應 註譯, 1995, 『黃帝四經今註今譯』,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 陳廣忠·梁宗華, 2004, 『道家與中國哲學-漢代卷』, 北京: 人民出版社.
- 何建明, 1997, 『道家思想的歷史轉折』, 上海: 華中師大出版社.
- 김경수, 2008,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 서울: 심산출판사.
- 김덕삼, 2004, 『中國 道家史 序說 I』, 서울: 경인문화사.
- 김덕삼 편저, 2006, 『도교의 기원』, 서울: 시간의 물레.
- 김덕삼, 2013, 「場의 변화에 따른 孝의 역할 고찰」, 『儒敎思想文化研究』, 52집.
- 김덕삼, 2013, 「場의 변화를 통한 중국 少數民族의 自願的 變化 고찰」, 『中國研究』, 제58권.
- 김덕삼, 2019, 「한국에서 도가 문화의 수용과 창조」, 『한국학연구』, 68집.
- 김덕삼·이경자, 2019, 「진시황의 삶을 통해 본 교육적 의미」, 『中國學論叢』, 제63집.
-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서울: 김영사.
- 앵겔스, 황태호 역, 1989, 『자연의 변증법』, 서울: 전진출판사.
- 丁原明, 1997, 『黃老學論綱』,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A Study on Han Dynasty DaoJia Thought  
through 'Change' and 'Field' : Centering on  
HwangLaoxhe[黃老學]

Kim Dug Sam(Professor,  
Institute of Liberal Education, Daejin University)

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HwangLaoxhe, which had a political impact in the early Han Dynasty period, was explored by the standards of Change and Field. HwangLaoxhe was a form of DaoJia Thought, which originated in LaoZi, when it arrived in Han Dynasty, which existed as a form of DaoJia Thought. Whang[黃] refers to HwangDi[黃帝], Lao[老] refers to LaoZi[老子], but the influence of LaoZi was great. Unlike LaoZhuang thought during the XianQin period, HwangLaoxhe emerged early in Han Dynasty. Such a political influence is unusual in the history of DaoJia History or politics. It was the first and last time in the aspect of DaoJia to come out in the front lines of politics and society to influence. This characteristic gave rise to the study. They wanted to explore the variables surrounding it and the changes that occur in it. To this end, the text simply identified the meaning and value of 'Change' and 'Field'. Han Dynasty' DaoJia thought through the tool 'Change' and 'Field'. To study how DaoJia thought changed in the early days of Han Dynasty. Under the change, we fou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 'Subject' called DaoJia has with the 'Field' surrounding it. Through this we found out how DaoJia thought and Han Dynasty society had changed. And in it, we found out what 'Pattern' we could find.

## Key words

Change, Pattern, Subject, Field, DaoJia, HwangLaoxhe